'영어 말문트기'…광주·전남 합숙형 영어캠프 가보니

미국 현지처럼 영어랑 놀아요

초등학생들부터 당장 영어로 말하고 듣는 일이 당면 과제가 됐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 인수위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영어로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영어교육 정책 틀을 연일 제시하고 있다. 공교육 현장에서도 교사가 영어로 수업하고, 학생은 영어로 질문하는 장면이 어색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다.

영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회화 중심의 영어캠프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가 8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조성한 '파주영어마을'은 영어를 배우려는 초·중·고교생 외에 일반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각광받고 있다. 최근 개장한 광주·전남의 합숙형 영어캠프 두 곳을 둘러본다.

장흥군 안양면 남도국제교육원에서 영어체험교육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미술 수업을 받기 위해 교실을 옮기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남구 압촌동에 개원한 광주영어마을에서 참가 아이들이 서바이벌 게임을 즐기고 있다. 〈광주영어마을 제공〉

남도국제교육원 수학·사회·과학 과목도 영어 수업

광주영어마을 1930년대 미국 특성 그대로 재현

◇NIEC(남도국제교육원)

NIEC(Namdo International Education Center)는 전남도립 남도대학 장흥캠퍼스에 위치한 학교기업이다. 남도대학과 전남도, KT, KTES 등이 합작해 50억여원을 들여 장흥캠퍼스를 리모델링했다. 현재 시범캠프를 운영 중이다.

NIEC가 내세우는 장점은 미국 유수대학들의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그대로 옮겨왔다는 것이다. NIEC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애고대학, 워싱턴주 웨스턴 워싱턴대학, 캘리포니아주 얼바인대학 등과 커리큘럼 뿐 아니라 인적 교류에 대한 협약도 맺었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로 1~4주까지 다양한 과정이 준비돼 있다. 캠프비용은 2주 기준 148만원이다.

NIEC 조명래(남도대학 U-정보통신과 교수) 원장은 "전국의 수많은 캠프들을 직접 현지 답사했다"며 "파주영어마을을 기준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펼치는 한편, 더 싼 가격에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말했다.

3층 건물의 1층은 은행, 공항 등을 재연시킨 시티존, 2층은 음악, 미술 등 수업이 가능한 스쿨존, 3층은 각 나라의 특성을 모아놓은 월드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영어회화 뿐 아니라 수학, 과학, 사회 등도 배우게 된다. 캠프 주변에 편백나무숲이 있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KTES 김영찬 교육기획팀장은 "집 떠난 아이들을 걱정하는 부모들을 위해 모든 교실에 CCTV를 설치, 인터넷 홈페이지(www.niec.co.kr)에서 실시간으로 아이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NIEC 측은 특히 1개반의 수강생이 12명을 넘지 않게 구성하고 12명의 학생당 원어민 강사 1명, 내국인 보조강사 1명을 두는 등 다른 영어캠프와 질적 차별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문의 1588-7310.

◇광주영어마을

광주시 남구 압촌동에 최근 문을 연 광주영어마을(www.gjvillage.co.kr)은 6천600㎡ 부지에 뉴욕,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텍사스 등 미국 각 지역의 특성을 담은 시설들을 마련했다. 300여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각종 편의시설도 갖췄다.

당일, 1박2일, 2박3일, 5박6일 등 4종류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초등학생 개인 기준으로 참가비는 각각 6만3천700원, 10만2천700원, 19만3천700원, 72만8천원 등이다. 프로그램에 따라 유치원생에서 고등학생까지 참가 가능하다.

광주영어마을 프로모션 담당 김설희씨는 "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스트레스 없이 놀면서 체험해볼 수 있게 해놓았다"며 "100% 민자 유치여서 서비스가 더 성실하고 그래서인지 교육을 받은 아이들과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원어민 강사 13명을 포함한 16명의 영어 강사들이 가르치며 한 반당 15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영어교육 기업 (주)아이피케이가 40억원 가량을 들여 조성한 광주영어마을의 특징은 1930년대 미국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시설이다. 뉴욕의 패션 1번지로 통하는 맨해튼 패션스토어,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 베이커리, 버지니아주의 알렉산드라 메디컬센터, 텍사스주의 포스워드 주얼리숍 등은 현지에 와있는 듯한 착각을 줄 정도다.

김태형 과장은 "광주에는 체험형·숙박형 영어마을 시설이 없다는 점에 착안했다"며 "광주 학생 뿐 아니라 전주나 대구에서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062-385-0733.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대 '공공디자인' 이끈다

광주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한 누리사업에 선정됐다. 사진은 광주시가 공공디자인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광주 문화전당 주변 조감도.

전문인력 양성 전국 첫 누리사업 선정

문화수도 등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주력

새 정부가 공공디자인을 강화해 아름다운 도시, 나아가 아름다운 나라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광주대학교가 추진 중인 '공공디자인 3UP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최근 누리사업에 선정돼 주목을 받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맹형규 의원은 "도시와 건물에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당선인도 '디자인드 인 코리아(designed in Korea), 멋진 한국'을 공약을 내세운 바 있어 디자인이 새 정부의 문화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한 누리사업은 광주대가 전국적에서 처음으로 선정됐을 뿐 아니라, 광주시도 문화전당권 주변을 공공디자인 시범지역으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실시계획(안)'을 발표해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광주대 공공디자인 3UP 전문인력 양성사업단(단장 이명규 교수·이하 사업단)은 다른 대학과의 협력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1년6개월 동안 국비 24억원, 광주대 4억원 등 모두 32억1천만원의 사업비를 쓸 예정이다.

협력기관은 광주시·전남도·여수시 등 지자체를 비롯한 광주디자인센터·광주테크노파크 등 22개에 달한다.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건축공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문화산업디자인학부, 주얼리디자인학과, 의상디자인학과 등 8개 학과에서 736명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연간 200명 가량의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제목에 명시된 '3UP'은 '유니버설디자인 참여(Universal Design Participation)', '유비쿼터스 계획(Ubiquitous Planning)', '창조적 정책(Unique Policy)'의 준말이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어디서나 연출이 가능한,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공공디자인을 지향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사업단은 공공디자인 교육이 실질적인 산·학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주제별 워크숍을 열고,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형 사업 등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공디자인 스튜디어 설치, 유비쿼터스 디자인캠프, 산업체 현장 맞춤형 산학협력 교류사업, 최첨단 실험실습실 구축, 국제화 체험 프로그램 및 해외 산업체 인턴십 제도 등 6대 세부사업 및 28개 실행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명규 사업단장은 "공공디자인이 국가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기에 누리사업을 하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광주는 공공디자인 조례도 정해진 만큼 대학과 지자체 모두 윈-윈 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을 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 지원해줍니다

농림부, 2만6천여명 대상 등록금 전액 무이자 대출

농림부가 올해 총 816억원을 들여 2만6천명의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빌려준다.

이는 지난해 747억원(1인당 평균 287만원)보다 69억원 늘어난 것으로 1인당 평균 융자금 규모는 314만원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은 학생의 학부모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학부모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우선 지원된다. 해당 농어촌지역은 시·군의 읍·면지역과 시의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뜻한다.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거주자는 2순위로 정해진다.

학자금 융자 지원신청은 한국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scholar.krf.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올해 1학기 학자금 융자 신청기간은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지난 199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27만7천명에게 4천703억원의 혜택이 돌아갔다. 문의 02-3460-5637.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